



# 시조창의 불꽃을 살리다 석암 정경태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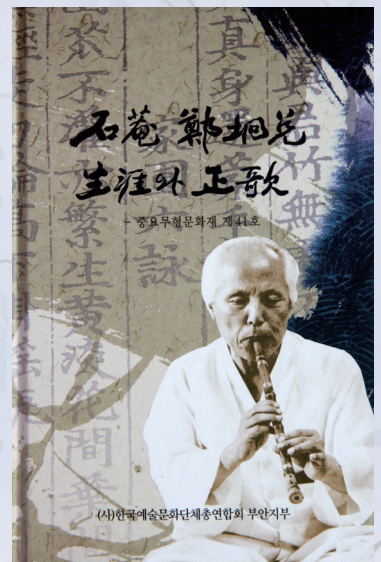
부안 출신인 석암 정경태(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1916~2003년) 선생 하면 생소한 이들도 많겠지만 조선 선비의 기개와 풍류가 흐르는 시조창(時調唱) 분야에서는 대가로 손꼽힌다.

석암 선생은 1916년 부안 주산에서 태어나 8세부터 15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서예와 시문을 익혔으며 16세부터 시조창을 배우기 시작한 시조 명창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의 예능 보유자이다.

본명은 정영옥, 호는 석암이다.

석암 선생은 어릴 적 사랑채에 드나들던 문장가와 풍류객들로부터 소리를 접하고 24세 때 당대의 명인 두봉 이병성 선생의 문하로 들어갔다.

두봉 선생에게서 12가사와 가곡을 익히고 해방 이듬해 교직에 투신해 부안농업고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 교사, 우석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 16세 시조창 배우기 시작 24세 두봉 선생 문하로 들어가 교직 은퇴 후 전국 돌며 부르는 방법 터득 '석암제' 완성 보표 처음 만들어 '시조보' 완성 시조의 고장 부안 드높여

교직을 은퇴하고 전국을 주유한 그에게 세상은 '정삿갓'이라는 별명을 안겼다. 석암 선생은 한번 집을 나가면 소식 끊기를 예사로 해 집에서 '모친위독'이라는 신문광고를 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석암 선생이 "괄십 평생을 귀신에 쫓듯 거리낌 없이 살았다"고 회고했을 정도다. 특히 석암 선생은 전국 각지를 돌며 다양한 시조를 접하면서 각 지방의 방언처럼 시조 또한 부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결국엔 자신만의 소리체인 '석암제'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마다 제각각인 시조창의 보표를 처음 만들어서 '시조보'를 완성하는 업적을 쌓았다.

석암 선생이 다시 불씨를 살린 시조창은 '시조시(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하며 '시절가', '시절단가', '단가'라고도 한다.

시조창의 창작 연대는 고려 말까지 거슬러 올라 가지만 현재 부르고 있는 창법은 조선 말 영·정조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조창은 가곡의 영향을 받아 '시조곡조'가 발생·보급됐는데 서울·경기지역의 '경제(京制)', 전라도의 '완제(完制)', 경상도의 '영제(嶺制)', 충청도의 '내포제(內浦制)' 등으로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나뉘게 됐다.

호남지역 시조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완제시조'는 허창, 전계문, 정경태 선생 등으로 내려왔으며 석암 선생의 시조는 김월하 선생의 시조와 함께 현대 시조창의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으뜸이었다.

석암 선생은 지난 1963년 대한시우회를 창립해 회장에 취임하고 1975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의 보유자로 지정이 되며 1997년에는 대한민국 문화훈장 보관장을 수상하기도 한다. 또 방일영국악상(2001년)을 수상했으며 조선 선비의 기개와 풍류가 흐르는 '백구사(白鷗詞)' 등 12가사를 잇고 시조를 생활 노래로 보급해 국악의 생활화에 기여했다.